

## 教授의 權威와 權威主義



全北大 總長 金 元 燮

權威(authority)라는 말은 가끔 權威主義(authoritarianism)와 혼동되어 否定的인 意味를 갖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秩序와 規則이 존중되는 社會라면 어떤 유형의 社會를 막론하고 권위라는 概念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마련이다. 教授와 學生間의 關係에서도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知識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권위는 필수적인 것이다. 實質적으로 교수가 그것을 意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권위는 항상 작용한다. 이 경우 교수가 반드시 斯界의 權威者일 필요는 없으며 또한 모든 교수가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어떤 수준으로든지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교수의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심하면 교수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敎育은 불가능하게 된다.

教授의 權威는 大學內에서뿐만 아니라 大學外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각종 社會組織이나 機關의 政策決定이나 當面課題의 解決에 參與하는 過程에서도 교수의 권위가 존중된다. 교수의 권위를 利用할 필요가 없다가 아예 認定하러 들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교수가 이러한 문제 해결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學校 밖에서 나타나는 교수의 권위도 물론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좀더 本質적인 것은 大學內 혹은 學問社會內에서 나타나는 권위라고 할 것이다. 가끔 이들을 뒤바꾸어 생각하는 교수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교수의 권위는 또한 교수라는 職位에 붙여진 권위와 교수의 專門的 知識과 技術로 인한 實質的 권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직위에 따른 권위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法令이나 約定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위이며, 실질적 권위는 교수 자신의 力量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권위이다. 兩者는 相補的인 關係에 있고 따라서 어느 한 쪽도 소홀

히 할 수 없는 것이 교수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職位上의 權威와 實質的 權威가 調和를 이루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교수의 실질적 권위는 그가 가지고 있는 專門的 知識과 技術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분야에서 權威者로 대접받는 사람의 권위는 특수한 訓練經歷이라든가 證據에 접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든가 그리고 과거에 그들의 意見이 대체로 옳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그들의 意見이 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생긴다. 따라서 知識 分野에 있어서는 어떤 권위자의 의견에 대해서라도 항상 證據와 理由에 입각하여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意味에서 지식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권위는 반드시 잠정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아무리 學識이 豊富한 權威者의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의 말이기 때문에 眞理가 되고 옳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學問에 있어서 命題의 眞僞는 窮極的으로 그것을 主張한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 없이 그 事實을 發見하고 査定하는 公的인 節次에 의해 決定된다.

권위에 따르는 가장 큰 危險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權威主義者로 되는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실질적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를 가장하고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교수가 자기의 優越하고 有利한 位置를 이용하여 獨斷을 내리거나 위엄을 부리는 것은 그가 權威主義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표시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統制力을 행사한다는 데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그들을 永久的인 隸屬狀態에 붙잡아 두려고 하고 학생이 다른 데로 愛着을 돌리면 질투를 느끼기조차 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화로 자기 마음대로 學校規則을 조이고 늦추고 하기 때문에 大學에 나쁜 影響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 追從者는 생길지 모르지만 그는 自己의 職分을 背反하는 셈이 된다.

學問에 있어서 重要的인 것은 特定個人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眞理인가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眞理를 알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敎化를 하고 있는 것이다. 敎化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信念을 注入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傳達되는 신념을 評價할 수 없도록 하는 根據를 提示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가 權威主義的인 또는 獨斷的인 方法으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권위에 依存하는 狀態에서 內面的인 思考의 形式을 이해하는 상태로 발전하기가 매우 힘들게 될 것이다.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수는 權威者이어야 함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知的 權威에 도전하는 힘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敎授는 權威를 지키되 權威主義者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교수라는 직위에 따르는 권위는 물론이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따르는 실질적 권위를 지키는데 있어서도 교수는 그러한 권위에 따르는 社會的 및 道德的 責任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權威主義的인 혹은 獨斷的인 誤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